

●대림 제 4주일 강론

초등부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라면 성탄에 대한 남다른 추억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으로 분장하여 아기 인형을 안고 연극의 한 장면을 연습했던 아름답던 그 시절, 똑소리 나게 마리아의 역할을 잘했던 여학생과는 달리 변변한 대사도 없이 어정쩡 서 있던 요셉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오늘은 성경에도 역시 밋밋하게 소개 되고 있는 요셉 성인의 삶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마태 1,19)

요셉 성인의 성격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갈등을 했겠습니까? 율법에 따라 일 년간의 약혼기간을 보내며 결혼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그에게 사랑하는 약혼녀의 임신 소식은 어처구니 없는 배신감과 불신을 가져다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모든 것을 가슴에 담고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작정”(마태1,19)합니다.

고민과 상처가 얼마나 크고 심했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정직했으며 침착했던 사람이 요셉 성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따지고 망신을 주며 사방에 소문을 내어 보복하고 싶어 했을 일을 요셉은 전혀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놀랍지요.

우리 주변에는 놀라운 일을 접했을 때 두 종류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남의 허물을 일삼아 찾아다니고 들추어내어 드러내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이웃의 잘못만이 눈에 띄는 이런 사람들은 남의 불행을 자기의 행복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이지요. 주변에 친구들이 있을 리 없고 당연히 하느님도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격려해 주는 사람, 그리고 정말 힘겹고 어려운 이웃들과 마음으로부터 함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과 함께 하며 위로와 기쁨을 얻습니다.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이런 사람이 바로 요셉 성인과 같은 유형의 사람이지요.

요셉 성인은 따뜻하고 깊은 마음으로 궁지에 몰렸던 마리아를 감싸주었고 그 모든 오해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 바탕에는 요셉 성인의 놀라운 인품과 신심이 깔려 있지요. 요셉은 오랜 고뇌의 기간을 뒤로 하고 파혼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지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마태1,20-21)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셉 자신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과 미래에 일어 날 일들을 모두 동원해 예측해보아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었지요. 남에게 일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더군다나 바로 요셉 자신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마태1,24)

주님의 뜻이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믿음과 사랑이 구세주를 이 땅에 오시게 만든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명했던 요셉의 믿음이 없었다면 아기 예수님은 탄생하지 못했을 지도 모릅니다.

이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아하게 만들어진 구유를 아무리 뚫어져라 쳐다보아도 만날 수 없는 예수님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게 될 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나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떠나서 먼저 따르는 마음이 될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각자 예수님을 받아드릴 마음의 구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이 될 때 그 자리에 주님께 서 자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만나는 나의 기쁜 모습을 통해서 이웃들 또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뜻에 믿음으로 응답함으로써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왕스의 박애주의자이자 집 없는 이들의 아버지였던 ‘아베 피에르(1912~2007) 신부님’은 당신의 어린 시절을 회고하며 몇 가지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기셨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

항상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에덴동산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수많은 불평거리를 찾아냈을 것이다. 어딜 가더라도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을 둘러싼 주위 환경에서 늘 아름다움과 은총을 본다.

* 스스로 바라볼 때
당신은 어느 쪽 사람이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어느 쪽으로 바라볼까요?
물론 후자 쪽이시겠지요?
만일 아니라고 여겨진다면
지금부터 당장 그 쪽으로 옮겨 놓아야 합니다.
에덴동산에서도 늘 투덜대는 모습 속에서는 인품(人品)도, 사람의 향기도 없습니다.

●공소일반공지 ●

▶고해성사 : 미사 10분전과 미사 직후
 고해소앞에서 대기바랍니다

▶성가대원 수시모집 : 문의는 성가대장에게

▶사목회의 : 매월 마지막 주일

▶바느질기도회 : 매월 격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울뜨레아 : 매월 첫주일

● 대림에 바치는 기도

우리를 구원하신 천상은총이
우리게 기쁜구원 내려줄것을
위대한 예언자들 미리알고서
예수임 오실것을 선포하였네

다가올 기쁜영광 미리알리는
진실한 예고소리 울려퍼지는
이아침 유난히도 빛을발하고
기쁨이 마음에서 솟구치누나

사람들 범죄한후 처음오심은
세상을 처벌하기 위함아니고
쓰리고 아픈상처 싸매주시며
없었던 모든사람 구하심이네

세말에 다시오심 예고하나니
심판날 성인에게 상급주시고
행복한 하늘나라 문을 여시려
예수님 문앞에서 기다리시네

영원한 하늘의빛 이미퍼지고
구원의 아침새별 반짝이나니
찬란한 천상빛이 우리를불러
천국의 시민되라 초대하시네

예수님 당신만을 찾고있으니
당신의 천주성을 보여주소서
그모습 영원토록 바라봐오며
세세에 찬미노래 부르오리다. 아멘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문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셨나이다.
- 저희는 수시로 주님을 잊고 때로는 소홀히 하며 거룩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나이다.
-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청하오니 저희 서부공소가 본당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과 일치로 하나 되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마침내 저희가 본당공동체가 되는 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서부공소 및 본당 소식

◎ 성탄 대축일 판공성사

3차:12월 23일(넷째 주일)-오후 4시~미사 전까지/
미사 후-30분
(가능하시면 미사전 시간을 이용해주세요)

◎송년 확대 사목회의

일시: 12월 30일(넷째 주일)-미사 후
장소:박재영 형제집(307 Castle field, waterloo)
비고: 각 부서 장/차장, 총무 및 각 구역장,
울뜨레아 간사, 총무 포함

◎ 2008년도 현금 봉투

새해 현금 봉투를 안내 데스크에서 받아가세요.
새로 필요하신 교우는 준비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즉시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서원일 재정부장

◎ 바느지도회

12월 26일(수) 오후 7시30분/ 박순웅 형제집

◎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

올해는 저희 서부공소가 창립된지 12주년이
됩니다. 공소가 본당이 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실 것입니다.

모름지기 저희의 정성된 기도와 이루고자하는
마음가짐이 보다 중요한 때 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온전히 모아 마침기도로 '본당으로 가는
길'을 바치겠습니다.

◎ 친선볼링클럽 안내

▶기간: 12월 3일~2008년 3월말 까지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장소: Brunswick Bowling Centre (전년과 동일)
▶문의: 윤명원 행사부장

◎ 주간 전례

▶12월24일(월) 밤 10시, 예수성탄대축일밤미사
▶12월25일(화) 오후 5시, 성탄 대축일 본미사
▶12월27일(목) 낮 12시, 성 요한 사도 축일

▶12월27일(목) 밤 8시, 성 요한 사도 축일

◎ 성탄 미사 안내

12월 24일 월요일 밤 10시 성탄 성야미사
12월 25일 화요일 오후 5시 성탄 본미사
오후 6시 친교식사 오후 7시 구역별 장기자랑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미사와
신년 인사 오후 5시 미사 및 인사
오후 6시 친교식사

◎세계성체대회 참가신청

2008년 6월 20-22일 퀘벡에서 개최되는
세계성체대회 신청을 받습니다.
선착순 20명 참가비 : \$ 350

“당신 덕분이에요”라고 좀 더 많이 말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늘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감사하는 말 한마디는
항상 우리로 하여 미소를 머금게 합니다.
그러니"당신 덕분이에요"라고 좀 더 자주
말하세요.

즐거움과 행복은 언제나 함께하는 것.
감성이 풍부하지 못한 사람은
줄곧 "나" 만을 앞세웁니다.

그러나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늘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나"를 앞에 두든. "당신"을 앞에 두든
놓인 위치는 달라 보이지만.
사실 그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사의 마음이 담긴 말은
작은 노력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원망이 서린 말은
아무리 애써 노력해도 성과가 없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길 원합니다.
당신부터 작은 일에 감사하십시오.

2007-51

2007. 12. 23.

대림 제 4주일

▶주일 미사	주일 낮 11시 30분
▶ 서부 공소 (주일) 오후 5시	
▶ 동부 공소 (토) 오후 7시	
평일 미사	주일 주보에 공지(화,목,토)
성모 미사	매월 첫 토요일 낮 12시
성 시 간	매월 첫 목요일 오후 8시
주일 학교	주일 낮 11시30분 미사 중
예비자교리	매년 6월-12월, 6개월 교육
유아 세례	매월 마지막 주(미리 신청)
건진 성사	2년에 일회, 1개월 교육
혼인 성사	결혼 6개월 전 면담
고해 성사	미사 전·후
병자 성사	병환 중과 임종 직전
주임 신부	고 원 일

미 사 전 례

해 설 |이명희 차주 해설 박명옥

화 답 송 |주님께서 들어가시니, 그분께서 영광의
임금이시로다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알렐루야

성 가

입 당 (93) 임하소서 임마누엘
봉 헌 (226) 하느님 자비하시니
성 체 (151) 주여 임하소서
퇴 장 (96) 하느님 약속하신 분

	독	서
12월 23일	정경래	정문진
12월 30일	노동원	노성은

	봉	헌
12월 23일	서원일	서소영
12월 30일	정경래	정문진

	복	사
12월 23일	하람	현재
12월 30일	지홍	지헌

2007년 12월 9일 현금 내역	
주일헌금:	\$ 785.00
Total:	\$ 785.00